무주군 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창립총회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무주군, 마을경쟁력 키운다

지역공동체활성화協 창립총회 개최
설천면 호롱불마을 박희축 회장 선출

무주군 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 3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하성용 부군수를 비롯한 마을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무주군 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는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거나 추진했던 마을들이 모여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에서 구성한 협의체로, 이날 회의는 임원 선출과 회칙승인,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그동안 준비위원장을 맡아왔던 박희축 씨(설천면 호롱불마을 위원장)가 회장으로 선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희축 위원장은 "마을이 살아 숨쉬어야 지역도 발전을 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생기는 것"이라며 "마을 만들기의 경험과 의지가 확실한 마을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한 만큼 마음과 역량을 모아 마을을 키우고 주민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보자"고 말했다.

무주군 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서는 앞으로 △마을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 △마을로 가는 축제 등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농 ·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사업, △주민 교육 및 컨설팅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마을 간 상호교류와 네트워크사업 추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중간지원조직 법인 구성 등 준비기를 거쳐 2017년(도입기)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지역공동체활성화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활동기)는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지원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발전기)는 각 사업들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성용 부군수는 "우리 지역 150개 마을이 경쟁력을 갖춰야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마을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 명품화 속도낸다

명인 송화수 · 명품 진심홍삼주 각각 지정서 전달

진안군은 민선6기를 맞아 진안홍삼을 군정 핵심정책으로 삼고 명품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띠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3일 송화수 홍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송화수씨을 명인으로, 농업회사법인 ㈜태평주가의 진심홍삼주를 명품으로 각각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명인으로 지정된 송화수씨는 홍삼분야에만 40년을 종사함으로써 진안홍삼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홍삼명인 이기도 하다.

또한 홍삼 증삼 시 사포닌 함량을 높이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 명인방식 특허 증삼법을 개발하여 진안 홍삼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명품으로 선정된 진심홍삼주는 연장리 농공단지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태평주가에서 생산되는 진안홍삼 대표 전통주로 국내는 물론이고 벨기에국제주류품평회 금상 수상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세계3대 주류 품평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국내외 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어 이 또한 진안홍삼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홍삼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100% 진안홍삼 실현, 진안홍삼 차별화·명품화 전략으로 2016년을 진안홍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참여기관 모집

18일~26일까지 신청 접수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부터 무풍면 삼거리에 위치한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을 개원한다. 작년 시범 운영했던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은 더욱 새로워진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은 숲에서 놀이와 학습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조성 된 곳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교육기관은 이달 18일 부터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실내에서 놀던 아이들이 숲속 자연에서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숲과 교감하며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모집 대상을 정기적으로 유아숲체험을 원하는 관내 기관뿐만 아니라 경상도 거창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63-320-364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세무담당 공무원 전문성강화 교육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등 실시

완주군은 3일 군 전산교육장에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6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기법 및 민원응대요령,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인사발령으로 읍면에서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읍면 담당자에게 "최일선 민원 밀착행정기관인 읍면 지방세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교육은 2016년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완주=이중복기자

무주 강소농 농업경영체 모집

군, 29일까지 선정키로

무주군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의 주역이 될 강소농 농업경영체 선정 계획을 밝혔다.

강소농 농업경영체 선정은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율, 자립 역량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월 29일까지 중소규모 가족농가 중심의 농업경영체와 가공사업장, 농촌체험 농장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자원경영팀과 농업인상담소에 하면 되며 무주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경영개선 기본교육을 이수한 농가 중에서 강소농 농업경영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강소농 농업경영체에게는 경영개선 교육과 농가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율모임체 조직 및 활동 지원, 우수경영체 사례발표 등이 지원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강혜경 자원경영 담당은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대상 선정에서부터 지원까지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을 통한 농가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실무능력 향상 워크숍 개최

진안군은 3일 국가예산확보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업무를 함께 공유하고 신규 사업 발굴 등 국가예산 확보 의지를 다지기 위한 워크숍을 산약초타운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기재부 및 전북도의 국가예산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국가예산 확보전략, 분야별 발굴방향 및 대응에 대한 특강을 하였으며,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과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해 국가투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발굴한 41건, 국비 1,374억원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돌아갈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군의 재정규모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공직자 스스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러 현안 과제를 창조적,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배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2016년에 국비보조사업 850억원, 도시가스사업 1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50억원, 국토관리청 추진 SOC분야 10억원 등 총 92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는 설명절을 앞두고 관내 귀금속업체에 대해 무인경비(캡스)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무주 주계파출소, 설맞이 무인경비업체 점검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주계파출소(소장 최식배)는 설명절을 앞두고 특별 방범활동 기간 중 관내 귀금속업체에 대해 무인경비(캡스)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최식배 소장에 따르면 귀금속업체 등 무인 경비 합동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등 예방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은 지역이 방대해 단순 절도 등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동력을 이용한 범인들의 도주로 검거가 쉽지 않아 지역순찰 강화로 사전예방에 진력하고 있다.

아울러, 주계파출소 경위 양석호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등 남다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안전과 방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설 명절을 맞아 절도 등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중의 지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식배 주계파출소장은 "농촌의 노령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절도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면서"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로컬플러스

장수군, 설 종합상황실 운영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휴기간인 6일부터 10일까지 종합상황반, 재난관리대책반, 물가안정대책반, 생활민원대책반, 의료대책반, 교통대책반 등 6개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 설 연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 재난상황관리태세를 강화하고 한파 등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 및 대응으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기동청소반과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 쓰레기와 상수도 등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비상의료체계 구축으로 의료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여객수송 능력 확충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설 맞이 이벤트 다채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진안고원시장에서 경품행사, 시장 가요제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귀성객에게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설은 전북지역 구제역 확산우려에 따라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종전 단체 장보기 행사를 전 직원 자율적 장보기 행사로 대체하고, 장보기 행사를 위해 복지포인트 배정분 중 5,20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괄 구매해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군은 평상시에도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 장려를 위하여 진안장날 (4, 9일)이면 청내 방송을 통해 '진안시장 장보러 가는 날'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진안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설 맞이 고객 이벤트'를 개최해 지난 1월 29부터 오는 6일까지 진안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가 개최되며, 추첨은 진안시장 내 점포동에서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실시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농협, 설맞이 계란나눔 행사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이승진)는 연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의 계란 나눔 행사"를 장수군 장애인 연합회와 복지시설 2곳에 계란 180판(100만원 상당)을 전달식을 실시하였다.

NH농협은 금번 실시하는 "사랑의 계란 나눔행사"는 축산관련단체 및 농협임직원의 후원금을 재원으로 마련하였다.

NH농협 장수군지부장 이승진은 "계란은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를 발달시키고 ,성인에게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노인에게는 치매예방에 효과적인 완전식품이다"며 "사랑의 계란 나눔행사를 통해 농협이 지역사회와 더욱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기자

농협 전주완주지부, 쌀 기탁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정형모)가 설명절을 맞이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20kg 70포(350만원 상당)와 계란 300판(12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는 2013년도부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되는 백미지원 등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오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백미와 계란은 경기침체로 후원손길이 끊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이 훈훈한 설 명절을 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모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장은 "농촌지역 복지와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